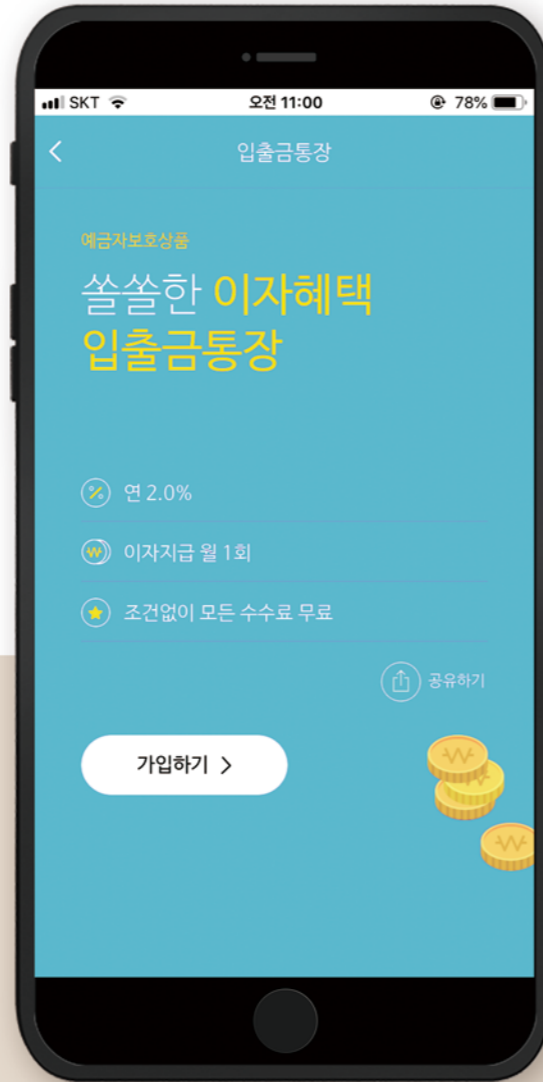


파킹통장으로 딱!

#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하루만 맡겨도 연2.0%  
조건없이 모든 수수료 면제  
모바일로 편리하게 가입

- 가입대상: 개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내국인)
- 이자율: 연2.0%(1년 기준, 세전)
- 이자지급 시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자 계산 후 익월 1일 입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Autumn 2019 Vol. 23



#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Autumn 2019 Vol.23



04

표지모델  
SBI저축은행 정보보호팀 김진명 대리



08



12



24



20



34

- 04 **커버스토리**  
SBI저축은행 정보보호팀 김진명 대리
- 08 **SBI 포커스 01**  
사이다뱅크 개발 스토리
- 12 **SBI 포커스 02**  
SBI골프단 인터뷰
- 18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부동산여성심사부 이길용 과장 외 4명
- 20 **부서 탐방**  
전략기획부
- 24 **한끼 소통**  
안상희 이사가 추천하는  
동대문 진옥화 할매 닭한마리
- 30 **SBI 희망뉴스**  
2019년 3분기 주요 소식
- 34 **달콤한 나의 가족**  
이수지점 이연주 주임 부부의  
한강 요트투어 체험
- 38 **슬기로운 직장생활**  
SBI저축은행 '직장인 공감영상'
- 42 **따라 해봐요**  
밤, 콤퓨 그리기
- 44 **SBI 탐구생활**  
SBI회전 정기예금
- 46 **열린 편집실**  
공지사항, 편집후기

Autumn 2019 Vol.23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879(2019.09.30.01)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발행인 임진구, 정진문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유형근 주임 Tel. 02-3416-4210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 SHOW ME THE MONEY SBI

## 똥다 김기사 어깨가 들썩



### SBI저축은행 정보보호팀 김진명 대리

2017년 2월 입사. 2006년부터 7년간 홍대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활동한 랩퍼 경력의 소유자.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 랩을 잘해서” 시작하게 됐다는 전국 수백만 ‘랩치’들 힘 빠지게 하는 데뷔 동기. ‘힙합을 지키는 원탁의 기사’가 되기 위해 ‘김기사(Kim Knight)’라고 예명을 지었으나, 마침 그즈음 “김 기사, 운전해!”라는 유행어가 나오면서 얼떨결에 유쾌한 이미지 추가. 흔히 랩퍼 하면 떠오르는 ‘결렁’하다는 느낌은 ‘1’도 없는 딱 봐도 바른생활 사나이. 하지만 공연할 때만큼은 ‘미친 사람’처럼 음악을 했다는 열정맨. “어느 날 홍대 클럽에서 관객 5명 앞에서 했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연하는 저하나 감상하는 관객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 그야말로 정신줄 놓고 방방 뛰었죠.”



QR코드를 스캔하면 김진명 대리의 힙합 활동 시절 공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파란만장 김 대리, 당신이 궁금해!

나 자신을 10글자로  
PR한다면?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

나의 인생 음악은?  
DOC와 함께 춤을

내 인생  
최고의 모험은?  
국토종주

남들이 말하는  
나의 가장 큰 매력은?  
올바른 사람

나의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은?  
잘 살았습니다

전생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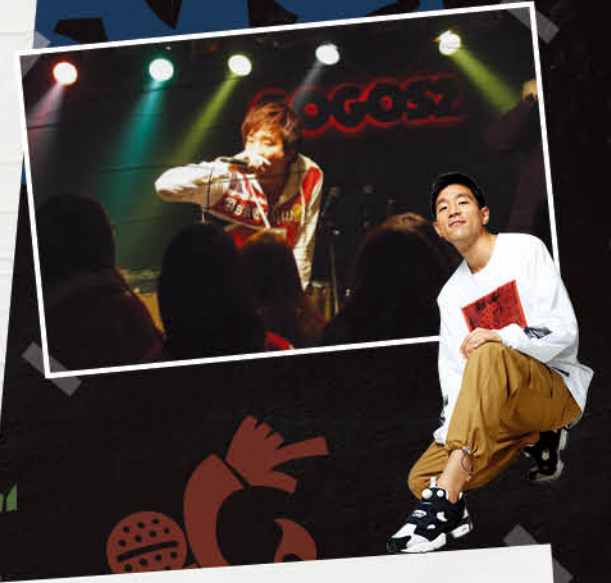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실무자가 말하는 모의해킹

거울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은?  
아주 못생기진 않았구나!



## 컴도사가 하는 정보보호

수학과 경제금융을 전공한 이력에 능통한 컴퓨터 실력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담당자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SBI저축은행 입사했다는 김진명 대리. SBI에 들어오기 한참 전, 김 대리는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 일한 적도 있다. 그때 8개월 정도 학원에서 컴퓨터 보안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보안 컨설팅 업체에 입사해서는 주로 한 일이 동료 직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컴퓨터 도사'다. 그런 사람이 SBI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니 더없이 든든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직접 할 만큼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힙합 할 때도 음악은 전부 컴퓨터로 만들었죠. 제가 자신 있는 컴퓨터와 관계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더없이 만족스럽습니다."



## 실력+체력+성실+근성=볼매

김진명 대리는 일찍부터 자전거를 좋아해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출전하고, 한때는 자전거 모델로도 활동한 건강하고 끼 많은 청년이기도 하다. 게임 덕후로 한때는 프로게이머의 연습 파트너였으며, 한편으로는 컴퓨터 덕후들의 성지로 알려진 '쿨앤조이' 사이트에서 '마스터' 등급까지 올라간 바 있는 컴퓨터 실력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국토종단까지 경험했으니 체력도 국가대표 수준.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한 휴대폰 판매직 사원에서 관리직까지 올라간 적도 있을 만큼 성실과 근성도 타고났다. 아, 이 사람. 알수록 파란만장, 볼수록 매력 뽐뽐! "작년에 결혼한 이후로는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예전엔 힙합과 자전거와 컴퓨터를 사랑했지만, 이제 저의 보물 1호는 제 아내입니다."



Focus 01

톡 쏘는 사이다가 왔다!

# 사이다뱅크 개발 스토리



“디지털 브랜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내가 만든 뱅킹 정말 되네!”

2019년 6월 15일, B-Project TFT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1년 반이간 지나긴 개발 과정을 모두 끝내고 마침내 사이다뱅크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던 날이었다.

“사이다뱅크는 처음부터 ‘사이다뱅크’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부족한 고객과의 접점 채널을 확대하고자 준비했던 온라인 채널인 ‘디지털 브랜치’가 사이다뱅크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디지털 브랜치’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가 참여한 워킹그룹에서 진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 중심에서 수산, 여신 통합 브랜치로 방향성이 바뀌면서

사이다영업부가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논의 끝에 기존의 ‘디지털 브랜치’보다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만들기로 했고, 프로젝트 담당이 사이다영업부가 되었죠. 그렇게 2018년 2월 공식적으로 ‘사이다뱅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B-Project TFT 홍원기 부장)

최근의 금융거래는 이미 2017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비중이 PC를 압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고유영역이라고 인식되었던 이체나 대출 같은 분야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모바일 변화를 선도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들 사이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손발 척척!

SBI 7인의 모바일 선발대



작지만 강한 뱅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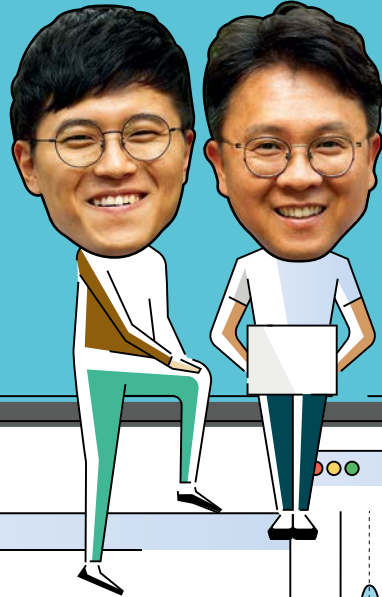
오픈 100일도 채 안 지난 사이다뱅크는 조금씩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은 완성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서비스 시작 후 1주일쯤 지났을 때 어떤 고객이 보통예금에 2.8억을 예치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7월말 하루 이체거래가 4천 건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1년 6개월간 개발업체랑 싸우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현실의 벽 앞에 소주 한잔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울

컻한 순간이었죠.” (B-Project TFT 홍원기 부장)

현재 사이다뱅크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체/간편이체’ 기능이다. 뱅킹서비스라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보통예금 사용고객이 많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이다뱅크에서는 보통예금 10만 원 이상 잔고가 있는 고객이 전체 고객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저축은행 수신 = 정기예금 고객’이라는 등식이 사이다뱅크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유호원 주임**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요즘 고객은 고만고만한 것 여러 개보다 똑똑한 것 하나를 더 좋아하니까요. 수많은 Banking서비스 중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홍원기 부장**

모바일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주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과 정보시스템실, CSS부, 리테일영업1사업부, 지점관리부 등 사이다뱅크 오픈을 도와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광호 과장**

저축은행에게 수신이란 분야는 항상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별다른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랜 관행을 사이다뱅크가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유장은 과장**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속도와 성능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모바일은 영업창구가 적고 기반이 취약한 저축은행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업 채널이죠. 사이다뱅크는 앞으로 더욱 치밀한 자세로 비대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지연 주임**

최대한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거 왜 샀어?" 하고 물어보면 "예뻐서!"라고 답해요. 팀이 만장일치로 "예쁘다"고 결정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용 주임**

사이다뱅크 개발의 최대 애로사항(?)은 퇴근 후 택시 잡는 일이었습니다. 오픈 날짜가 다가올수록..... (다행히 주 52시간 적용 전이었습니다.) 밤 12시 넘어 울지로서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다들 잘 아시죠?

**이보영 주임**

저희 사이다뱅크만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 집중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을 순 없지만 '이거 하나는 사이다뱅크가 가장 좋다'는 평판을 꼭 만들겠습니다.

**제상에 이런 모바일 뱅킹이!**



Focus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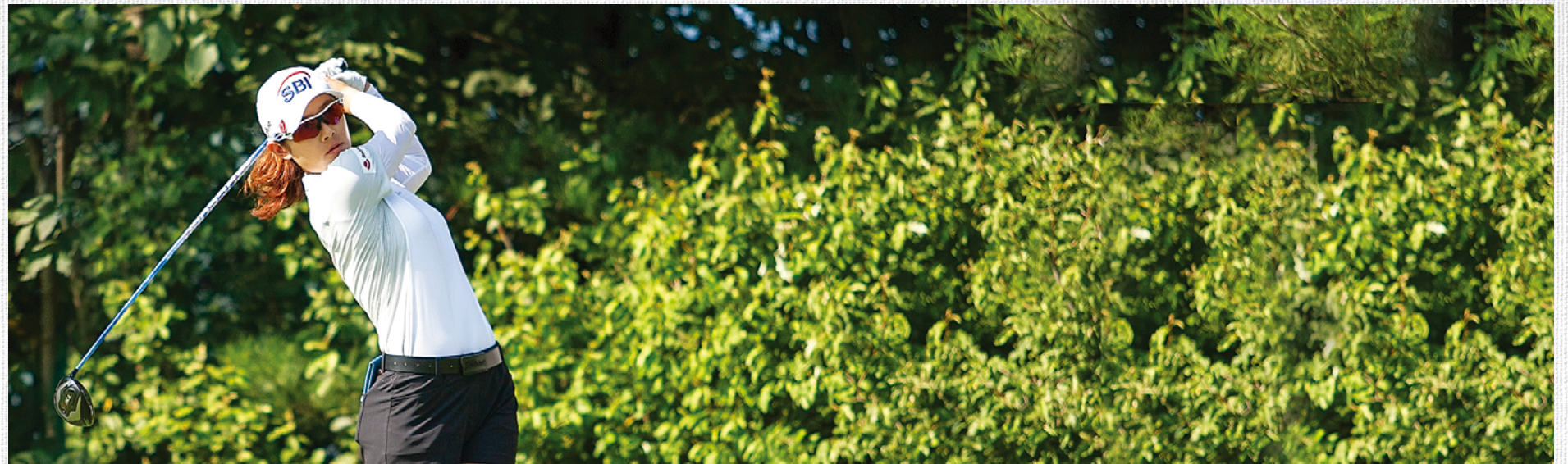
# 열심히 달렸습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SBI골프단 인터뷰

“쉽 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 많이 남아 있습니다.”  
SBI골프단 김아림, 정연주, 이소미 프로에게 2019 시즌은 여러 가지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팰리스에서 열린 KLPGA 하반기 첫 메이저 대회인 ‘한화 클래식 2019’에서 만난 SBI골프단 선수들에게서 올 시즌에 대한 평가와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를 들어보았다.

### Mini Interview

- ❶ 최근 컨디션 또는 몸 상태는 어떠신지요?
- ❷ 올 시즌 현재까지 성적에 대해 자평을 하자면?
- ❸ 플레이 스타일이나 마음가짐 등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올 시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❹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또는 순간이 있다면?
- ❺ 올 시즌 남은 경기에서의 목표는?



### KLPGA 부동의 장타 1위

- ❶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 회복에 힘쓰며 보내고 있습니다.
- ❷ 변화한 만큼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들이었기에 뿌듯합니다. 아쉬운 경기들이 값진 경험으로 저를 더 성장시키리라 믿습니다.
- ❸ 작년보다 기술이나 피지컬 면에서 모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바로잡히면서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다양한 공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 ❹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우승한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에 플레이하기 답답했던 코스에서 한 우승이라 더 인상 깊게 남습니다.



문영의  
영광을  
한번 더!



## — 김아림 프로 —

- ❶ 남은 시즌에서도 결과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과정에 결과가 따라와야 하는데 결과를 쫓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과정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 말언니의 품격

- ❶ 매주 대회로 때때로 근육통이 있지만 대체로 컨디션은 좋은 편입니다.
- ❷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❸ 생각이 많이 심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 ❹ 해마다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들이 갤러리 응원에 참여해 주시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 정연주 프로 —

- ❶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전에서 결과에 그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즌 실행력이 좋은 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모두  
저 멀리!







루키 우승?  
나라고  
못할쏘냐!



남은 대회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당돌한 신예

- ① 안녕하세요! 언제나 시합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웨이트와 연습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늘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올 시즌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시합이 남아있으니 더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 ③ 작년보다 투어에 많이 적응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점점 적응이 되고 있다 보니 성적과 과정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 ④ 당연히 '티채리티오픈'이죠. 마지막 홀 파퍼트를 놓쳐서 우승을 못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 덕분에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도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마지막 홀 버디를 많이 한답니다!

### 이소미 프로

- ⑤ 아무래도 올해 루키 우승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2019년 KPGA에서 열리는 대회는 모두 29개로 총 상금은 약 226억 원.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 대회를 시작으로 9월말까지 23개 대회를 치렀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2주 연속으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비롯해 총 6개 대회가 남아 있다. SBI골프단은 지난 7월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에서 김아림 선수가 우승한 것을 비롯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심 없이 달려온 2019 시즌,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SBI골프단의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본다.

## 솔솔 부는 가을바람에 새 얼굴이 실려 왔어요

풍요로움을 더해가는 가을 들판처럼 SBI저축은행의 인력 자원도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다.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반갑고 든든한 뉴페이스, SBI저축은행에서 새로운 결실을 꿈꾸고 있는 다섯 명의 경력직 신규 입사자를 소개한다.

나는 SBI저축은행의 ○○○이 되겠다.

1. 글자로 내 PR을 한다면?
2. SBI저축은행에 입사해서 가장 좋은 점은?
3. 2019년 하반기 나만의 개인적인 목표는?
4. 2019년 가을을 맞아 동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다면?



### 핀테크TFT 조용호 대리

- ① 저는 SBI저축은행의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든든한 성장 에너지가 되고 싶습니다.
- ② 언제나 밝고 유쾌합니다.
- ③ 업계 최고의 전문가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 ④ 주말마다 자전거 타며 운동하기
- ⑤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생각법》(마이클 미칼코 지음) -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조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전략기획부 이경한 과장

- ① 저는 SBI저축은행의 '아이언맨'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언맨 캐릭터처럼 노력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② 항상 즐겁고 자신감 있게
- ③ 밝은 분위기와 친절한 선배님들
- ④ 골프 필드 진출과 체중감량
- ⑤ 《구디 안다르크》(염기원 지음) - 작가가 친한 선배님이어서 읽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청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 부동산여신심사부 이길용 과장

- ① 저는 SBI저축은행의 '저울'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적인 관점을 지향하며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 ② 인상은 차갑지만 세상 따뜻한 남자
- ③ 직원 간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활발한 조직문화
- ④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기
- ⑤ 《디지털 트렌드 2019》(연대성 지음) - 최신 디지털 트렌드가 쉽고 간단히 요약돼 있어 부담 없이 술술 읽힙니다.

### IB2부 오선영 대리

- ① 저는 SBI저축은행의 '윤희유'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원이 되겠습니다.
- ② 언제봐도 편한 친구 같은
- ③ 업계 1위 자부심
- ④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하기
- ⑤ 《약간의 거리를 둔다》(소노 아야코 지음) - 삶의 해안이 담겨 있는 짧고 굵은 에세이입니다.



### IB4부 황윤성 주임

- ① 저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항상 자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일신우일신 노력하는 자
- ③ 존경스러운 부장님, 든든한 선배님과 동료 분들이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 ④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 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칼 포퍼 지음)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 냉철한 전략과 엄격한 규정에 따스한 온기를 담는 사람들

## 전략기획부

삼짝 미간을 찌푸린 채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동자. 잘못 만지면 손이라도 베일 듯 뾰뾰한 옷깃에 도도한 걸음걸이. 농담이라고는 평생 안 해봤을 것 같은 '엄근진' 캐릭터. 우리가 흔히 '전략기획'이나 '법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편견이다. 과연 그럴까? SBI저축은행 전략기획부 식구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 영업과 지원을 아우르는 SBI 관제탑

2015년 5월 전략 부서로 신설되어 그해 10월부터 법무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전략기획부는 SBI저축은행 전사를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부서다. 경영분석 및 신사업 추진 등 전략기획, 소통 강화를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채널 확대, 지배구조법 관련 내부조직체계 정비관리,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법률 리스크 관리 및 통제,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내규의 제개정 등 체계 정비와 관리, 소송 등 법적 분쟁 총괄 등 업무 범위가 매우 폭넓다.

“전략은 영업과 지원을 아우르는 회사 전반의 성장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법부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주관하는 업무죠. 그래서 저희 부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 기획안이 회사의 이익에 보탬이 되거나, 취급이 어려웠던 일들을 법률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가능하게 했을 때, 중요한 소송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유준모 부장)

### 그 많은 소통에 온기를 담아

전략기획부는 회식보다 티 타임이 더 많은 부서다. 바쁜 업무를 마무리하거나 서로 축하 나눠야 할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커피숍에 모여 잠깐의 심포를 찍는다. 술자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시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나 더욱 실용적이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법·규정·제도·정책 등이 급변하거나 대외환경이 바뀌면 업무에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허백 부부장)

전략기획부는 업무의 범위가 전사 모든 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시로 다양한 부서와 소통을 해야 한다. 경영전략회의, 부서장 회의와 같은 전사 회의체를 주관하기도 한다. 대외적으로도 타 저축은행부터 중앙회, 금감원, 금융위, 시중은행 등 수많은 기관이나 회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다. 그 많은 소통에 '사람의 온기'를 담는 것, 그것이 전략기획부 전체의 가장 큰 목표다.



## Talk! Talk! 우리 부서 식구를 소개합니다



가족을 모두 미국에 보내고 외로움을 술과 골프와 유튜브와 플레이스테이션과... 등등으로 즐기는, 아니, 달래는 기러기 아빠



김기수 과장

회사에선 법무 베테랑, 회사 밖에선 만능 스포츠맨! 헬스로 다져지는 사프한 몸매의 소유자(가까운 미래에.....)



이두현 과장

허백 부부장

자상하고 따뜻하고 가정적인 남자. 그러나 차에 오르면 레이서의 본능이 깨어난다. 노후를 자동차를 정비하며 보내고 싶은 이 시대 진정한 애차가!



김선준 과장



유준모 부장

만나는 사람마다 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다니는 전략기획부 공식 딸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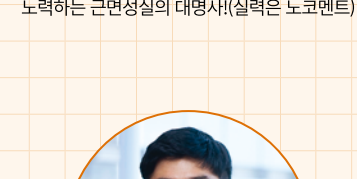


이경한 과장

삼일회계법인과 포스코를 거쳐 온 엘리트 회계사! 하지만 아직 미혼! 여친 절찬 모집중!



김관동 주임



김종영 주임

날카로운 눈매에 반지르르한 올백머리. 그러나 차도남 같은 외모 속에는 웃음 많고 다정다감한 김 집사가 있다. 외강내유외의 애견인!



윤지은 사원

인사성 밝은 전략기획부 막내. 그러나 똑 부러진 업무처리에 어느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는 당찬 신입사원!

오른손잡이이면서 왼손으로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허당기 가득한 신입사원이 어느새 전략기획부의 핵심전력이 되었다. 못하는 게 없는 전략기획부 최고 학력자!





## 배고픈 청춘의 든든한 한 끼 동대문 닭한마리의 추억

안상희 이사가 추천하는 동대문 진옥화 할매 닭한마리

‘아시아 최대 의류상가’인 동대문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동대문 원단시장과 평화시장 그리고 인근에 자리 잡은 시장 사람들이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마음을 녹여주던 곳이 ‘동대문 닭한마리 골목’이다. 이 골목 닭한마리집들은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4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호 ‘한끼 소통’에서는 흰칠한 키와 빼어난 패션 감각으로 ‘SBI 패셔니스타’로 불리는 부동산금융사업부 안상희 이사가 경영관리부 후배 3인에게 추억의 닭한마리 집을 추천한다.



### 원단시장 알바 친구 덕분에 알게 된 맛집

1978년, 동대문에 작은 닭요리 집을 열었던 진옥화 할머니는 훗날 그 식당이 미술랭 가이드에 오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닭요리집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진 할머니는 식구들 생계에 어려움이 닥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닭한마리집을 열었다고 한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서 오던 어려운 시절. 그래도 ‘신선한 재료에서 최고의 맛이 나온다’는 생각만큼은 놓지 않았다.

닭한마리 골목에서는 처음부터 지금의 ‘닭한마리’ 식의 요리가 아니라 ‘닭칼국수’를 팔았다. 그러니까 동대문 닭한마리 골목 요리의 원조는 닭칼국수인 셈이다. 지금도 이 골목 식당 간판이나 현판, 유리창에는 ‘닭칼국수’라는 단어가 남아 있다. 어떻게 보면 칼국수에 닭고기가 들어간 것에서 닭한마리를 육수에 넣고 끓이는 닭요리에 칼국수가 부재료로 들

어가는, 주객이 전도된 요리인 셈이다.

“1989년,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진옥화 할매 닭한마리집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외국인 손님은 많지 않았고, 주로 원단시장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 시절 그 맛을 못 잊어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와서 먹습니다.” (부동산금융사업부장 안상희 이사)

### 쇼핑과 패션의 메카 동대문시장

오늘날 동대문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 명소로 떠올랐다. 패션의 최첨단 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원래 동대문시장은 미국상, 어물상, 청과물상 등이 주를 이루어 1905년에 90여 개의 점포로 시작된 광장시장이



그 출발이었다. 6·25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전쟁 이후 주로 월남 피난민의 생활 터전이 되었으며 생활용품과 공용품, 외래품이 거래되면서 다시 시장으로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창신동 문구거리까지 약 1.3km에 걸쳐 청계천로 좌우로 형성된 시장 전체를 동대문시장이라 부르는데 건물 약 30여 동에 3만여 개의 점포가 있다. 평화시장, 동대문종합시장, 신평화시장 등이 전통적인 도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들도 이곳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이 가운데 동대문종합시장은 전국 최대의 원단 전문상가로 2,453개의 점포가 있다. 또한, 동대문쇼핑센터에는 345개의 점포가 있는데, 원단과 혼수용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혼수품을 취급하는 전문점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한 곳에서 신혼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거의 다 골라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이 시장의 특징이다.

옛 동대문운동장 쪽의 아트플라자, 디자이너클럽, 우노교래 등은 현대적인 상권을 형성한 곳으로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도·소매 의류 상인들로 북야성을 이룬다. 밀리오레, 두타 같은 대형 쇼핑몰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쇼핑몰마다 야외공연장을 마련해 초청가수 공연, 비보이 쇼, 댄스 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 열큰하고 개운한 국물맛에 반하다

안상희 이사가 추천한 추억의 맛집 '진옥화 할매 닭한마리'를 경영관리부 후배 3인방이 찾아갔다. 이은아 주임, 임진숙 주임, 동근호 사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진옥화 할매 닭한마리'의 메뉴는 단 하나, '닭 한 마리'. 역시 소문대로 식당 안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짧은 웨이팅 후 들머간 식당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수십 년 단골로 보이는 어르신들, 와이셔츠 차림의 근처 직장인들이 뒤섞여 기묘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주문을 하자마자 총알같이 나온 닭한마리를 앞에 두고 세 사람은 안상희 이사가 추천해준 '닭한마리 맛있게 먹는 법 4단계'를



이은아 주임



임진숙 주임



동근호 사원

떠올렸다. 1단계, 간장과 양념과 겨자를 1:1:1 비율로 섞어서 장을 완성하라. 2단계, 떡 사리를 시켜서 먼저 넣어라. 그리고 떡이 국물에서 떠오르면 먹어라. 3단계, 닭은 주인이 잘라준다. 닭을 먹으면서 국물을 중간에 한 입 씩 먹어라. 4단계, 닭을 다 먹고 칼국수를 시켜라. 여기서 중요한 건 김치를 꼭 칼국수 국물에 넣고 같이 먹어라. 김치가 닭의 느끼한 맛을 잡아서 국물이 개운하고 얼큰하다.

**‘소울’이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한 맛**

“이곳에 오면서 어릴 적 엄마 손 잡고 시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큰하고 시원한 닭한마리 국물은 먹을수록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좋은 장소와 음식을 추천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모델 분위기가 난다 싶었는데 동대문 원단시장에 얽힌 추억이 있으셨다니! 역시 이사님 답습니다. 하하.” (이은아 주임)

“식당에서 수많은 일본 관광객들을 보니 학창시절이 생각났어요.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한류의 유행으로 일본인 친구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아 일본어를 빨리 익힐 수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멋지신 우리 안상희 이사님! 다음에 또 맛있는 한끼 식사로 뵙고 싶어요.” (임진숙 주임)

“저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SBI저축은행에 들어왔어요. 취업 준비를 하기 한참 전 대학에 다닐 때 SBI저축은행 지점에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OJT 교육을 나왔던 신입직원을 보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식당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가끔 오던 곳이에요. 저에게는 추억의 장소인데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근호 사원)

‘닭한마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음식이다. 계절도 뚜렷이 타지 않는다. 봄은 봄대로,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라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또는 술안주로 사랑을 받는다. 얼큰한 맛은 얼큰한 대로 담백한 맛은 담백한 대로 인기가 높다. 큰 기대를 하고 오는 이들에게는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상차림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영혼까지 채워주는 음식이다. 안상희 이사가 경영관리부 후배 세 사람에게 추천한 닭한마리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그런 ‘소울’이 담겨 있기에 그 맛이 더욱 특별한 건 아니었을까.



2004년 삼성동 본점 대리료 근무하던 시절의 안상희 이사. 'SBI 패셔니스타'답게 이미 그때부터 옷차림과 포즈가 '모델'스럽다.



**진옥화 할매 닭한마리**

1978년에 문을 연 '진옥화할매원조닭한마리'는 닭한마리 메뉴를 최초로 선보인 곳이다. 식사 시간이면 외국인들까지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가 많다. 대표 메뉴 '닭한마리'는 닭 가운데 감자가 꽃힌 독특한 비주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계 수백 마리를 한 번에 넣고 끓여낸 육수 덕분에 진한 국물이 일품이다. 닭고기는 35일 된 영계만 사용하며 한 번 삶아 기름기를 빼내어 산뜻한 맛을 낸다. 벽면에 닭한마리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적혀있는데, 양념장은 다진양념 2, 간장 1, 식초 0.5, 겨자 2방울을 넣어 만들면 된다. 고추씨가 들어간 칼칼한 양념장과 김치를 국물에 넣어 얼큰한 버전으로 즐기는 방법도 인기가.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40가길 18  
 전화번호 02-2275-9666  
 영업시간 10:30~01:00(마지막 주문 23:30, 명절 전날·당일 휴무)  
 주요메뉴 닭한마리(22,000원), 국수사리(2,000원), 떡사리(1,000원)



**저축은행중앙회 초청  
친선 축구경기 개최**

지난 8월 20일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운동장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축구팀 'FSB'와 SBI저축은행 동호회 'FC SBI'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렸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 경기는 25분씩 총 4쿼터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스코어 4:1로 SBI저축은행이 승리하였다.

SBI저축은행은 1쿼터에 최상의 스쿼드로 출발했으나 득점을 올리지 못하다가, 적응을 마친 2쿼터에서 손재홍 주임의 선제골로 1:0으로 앞서나갔다. 3쿼터에서는 SBI저축은행 미드필더진의 실수와 저축은행중앙회의 조직적인 팀플레이에 고전하며 1골을 실점하였으나 김기호 대리가 한 점 차로 다시 앞서가는 추가골을 넣었다. 마지막 4쿼터에서는 체력적인 우위를 내세우며 안민욱 주임과 이효민 주임이 1골씩 기록하며 최종 스코어 4:1로 승리를 거두었다.

FC SBI 이응구 회장은 “멋진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를 마련해준 저축은행중앙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같은 축구 교류전으로 타사와의 건강한 소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희망을 저축하다, 캄보디아> 사진 전시회 진행**

봉사활동에 땀 흘리는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9층 접견장과 11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희망을 저축하다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지난 6월 캄보디아 푸울쌌라웅 중학교와 JESUS초등학교에 다녀온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의 모습을 담은 90여 점의 사진들을 전시했다. 사진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원정대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모습, 현지 아이들의 생생한 표정이 담긴 인물사진 등이 전시되어 내부 임직원은 물론 내방 고객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는 SBI홀딩스의 공익재단인 SBI어린이 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한국구세군이 연계해 출범한 봉사단. 작년 몽골 울란바토르 쓰레기매립지 마을에 이어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신규 실적 6천억 돌파**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이 출시 7개월 만에 신규 실적 6천억 원을 돌파했다. SBI저축은행은 현재 주요 시중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24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작년 9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된 바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 출시 이후 높은 금리, 업계 1위(자산 기준, 2019. 06 경영공시) 기업인지도, 높은 기업신용등급, 판매 채널의 다양화 등이 주요해 꾸준한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웃는 그대 얼굴 생각이 나

이수지점 이연주 주임 부부의 한강 요트투어 체험

‘요트’ 하면 왠지 ‘럭셔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요트는 어딘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즐기는 레저일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 둔치에 있는 ‘서울마리나 클럽 & 요트’에 가면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진다. 탁 트인 한강 조망 위로 도심 속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을 이수지점 이연주 주임 부부가 찾았다.

### 한강에서 즐기는 요트의 낭만

서울 한복판에서 요트를 타고 아름다운 노을과 상쾌한 바람을 느끼는 일,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 봤을 것이다. 그런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서울 여의도에 있다. 서울마리나 클럽 & 요트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요트투어와 헬기투어를 할 수 있는 복합 레저 시설로, 직접 요트를 보유하고 유상 운송을 하는 마리나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에 이른다. 크루즈 요트부터 비즈보트까지 다양한 요트를 보유하고 있어 커플 데이트에서부터 50명 단체 파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다.

“2015년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살다 보니 남편과 제대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둘만의 데이트인데 한강 요트 체험이라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수지점에서 근무하는 이연주 주임은 선선한 가을바람 부는 한강에서 요트 승선을 앞두고 잔뜩 설레는 표정이다. 남편 최상민 씨 또한 주말 저녁나절의 한강에 나와 있자니 왠지 로맨틱해지는 느낌이다.

“남편과는 2013년에 처음 만났어요. 교회 후배와 저녁을 먹는데 후배가 학교 선배를 불러 합석을 하게 됐죠. 그 선배가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노을 속에서 신혼으로 되돌아간 두 사람**

일몰 시간을 30분쯤 앞둔 5시 30분, 여의도에서 요트가 출발했다. 오늘 이연주 주임 부부가 체험하는 요트는 '커플투어' 프로그램으로 최대 4커플까지 승선할 수 있는 크기. 체험시간은 총 1시간으로, 일몰 시간이 포함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인기가 높다.

여의도에서 출발한 요트는 국회의사당을 뒤로 한 채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때마침 주변 건물과 다리 위의 조명이 불빛을 밝혀 두 사람 표정도 더욱 환해진다.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나오니까 남편이 처음 프러포

즈하던 날이 떠오르네요. 신혼집에서 남편이 써놓은 빨간 쪽지를 통해 무언가를 찾는 이벤트였는데요. 현관 비밀번호를 저희가 처음 만난 날로 지정해 놓았는데, 처음 쪽지부터 계속 비번을 잘못 입력해서 결국 남편이 문자로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젤리를 좋아하는 네 살배기 딸과 뭐든지 잘 먹고 잘 웃는 두 살배기 아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아닌 두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하늘도 알았던 것일까? 요트 출발 당시에만 해도 잔뜩 흐렸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아지면서 점점 발강게 물들어갔다. 이윽고 6시, 일몰 시간이 되자 서울 하늘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아름다운



노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노을을 바라보며 연신 셀카를 찍는 두 사람. 마치 신혼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언제나 지금처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사진 예쁘게 잘 나오겠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강게 익어가는 노을 속에서 두 사람의 애정도 한층 더 진하게 물들고 있었다.



# 회사야! 너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다

SBI저축은행 '직장인 공감영상'

SBI저축은행에서 유튜브 영상인 '직장인 공감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회사에서 만든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철저히 '직장인'의 시선으로 만든 동영상이라 보는 재미가 더욱 즐겁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는가?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번 호 사보에서 소개한다.



# 재택근무, 이럴 때 정말 부럽다!

회사는 왜 방향도 졸업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하루종일 메신저로만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사무실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재택근무는 정녕 꿈만 꾀야 하는 건가요?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워너비 재택근무! 어떻게 안 되겠니?



▶ 동영상 보러 가기



**#01 출근길 지옥철**  
아침마다 사람에 치이고, 가방에 치이는 지옥철을 탈 때...

**#02 업무진행 10분마다 체크하는 상사**  
알람 시계처럼 10분마다 업무 진행을 체크할 때...

**#03 내가 먹고 싶은 메뉴로 점심 식사**  
상사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원하는 시간에 먹고 싶을 때...

**#04 편하게 누워서 근무**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저리든... 내가 원하는 자세로 편하게 일하고 싶을 때...

**#05 들락날락 화장실**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것도 눈치 보고 싶지 않을 때...

# 내 안에 숨어 있는 이중인격

정녕 이것이 사회생활의 필수 스킬이란 말인가? 낮에는 직장인이지만 밤에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또는 딸, 아들인데! 회사에서는 세상 친절함 김 대리가 밤에는 말썽쟁이 노총각 큰아들로? 아, 회사에만 출근하면 이중인격을 장착하는 모든 직장인들이여…….



▶ 동영상 보러 가기



## #01 여보새끼 타임

불 뽐는 용가리에서 상냥한 미소천사로

## #02 꿀 먹었어요, 타임

사무실 인싸에서 회의실 아싸로

## #03 에스맨 타임

불평불만 투덜이에서 긍정만땅 에스맨으로



# 직장인 금기어

언제나 '입'이 방정이다. 제발 할 말만 하고 살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제발 함부로 떠들지 말자. 하지만 오늘도 나는 말실수를 저지른다. 이제는 나 자신한테 미안하다. 아, 도대체 내 입을 어찌하란 말이나? 자나 깨나 말조심! 열린 입도 다시 보자!



▶ 동영상 보러 가기



## #01 나 오늘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아!

#02 저... 술 좀 합니다!

#03 영문학 부전공이에요.

#04 회사 근처에서 자취합니다!



# 가을, 그 느낌 그대로 그려보세요

언제까지나 이어질 듯하던 여름도 가고 어느덧 가을이 왔다. 이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는 계절이다. 가까운 산에 가면 바닥에는 밤이며 도토리가 지천으로 뒹군다. 그 느낌 그대로 다이어리 한켠에 예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 || 밤 그리기 ||

<p>1</p>  <p>밤의 형태를 그려주세요.</p>	<p>2</p>  <p>양쪽 손을 그려주세요. (만세 동작도 좋습니다.)</p>	<p>3</p>  <p>다리를 양쪽으로 그려주세요.</p>
<p>4</p>  <p>밤 아래쪽부터 색칠해 줍니다.</p>	<p>5</p>  <p>눈구멍을 남긴 상태로 위쪽을 마저 색칠해주세요.</p>	<p>6</p>  <p>눈을 그려줍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더 푹푹찰찰해 보여요.</p>
<p>7</p>  <p>입과 볼 터치, 밤 무늬를 콕콕 찍어줍니다.</p>	<p>8</p>  <p>오른쪽에 코스모스를 그려주었어요.</p>	 <p>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p>

## || 곰커피 그리기 ||

<p>1</p>  <p>곰돌이 손 두 개를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p>	<p>2</p>  <p>손을 중심으로 얼굴을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귀도 동그란 형태로 그려줍니다.</p>	<p>3</p>  <p>얼굴 표정을 그려주세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에 가을 느낌을 담아 봤습니다.</p>
<p>4</p>  <p>컵을 잡고 있는 형태로 그려줄 거예요. 컵 안쪽을 먼저 그려줍니다.</p>	<p>5</p>  <p>바깥쪽 컵의 형태를 마저 그려주세요. 컵 우측에 손잡이도 그려줍니다.</p>	<p>6</p>  <p>컵 아래쪽에 받침도 그려주세요.</p>
<p>7</p>  <p>곰돌이를 색칠하고 커피도 색칠합니다.</p>	<p>8</p>  <p>컵을 칠하면서 단풍도 그려주면 완성!</p>	 <p>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p>


# 금리 상승 시기에 안정맞춤 회전식 정기예금도 SBI가 최고!

## SBI회전 정기예금

‘회전식 정기예금’이란 가입 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실제금리를 적용해 금리 상승시의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예금을 말한다. 정기예금은 가입할 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예금주는 다른 예금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예금 가입 기간 중 실제금리에 연동시켜 금리를 변경해 주는 예금이 바로 회전식 정기예금이다.



## SBI회전 (복리)정기예금 자세히 알아보기

구분	세부 내용											
가입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비대면 계좌개설 시 개인만 가입 가능)											
가입 금액	10만원~제한 없음											
가입 기간	36개월											
회전 기간	12개월(회전기간은 금리가 변경 적용되는 주기)											
이자 지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일시지급식: 회전기간별 약정이율로 복리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을 만기시점에 일시 지급</li> <li>•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회전기간 월수로 나누어 매월 이자 지급</li> </ul>											
금리 운영방법	변동금리(회전기간 시점 고시이율 적용)											
가입 절차	영업점/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중앙회APP)을 통하여 가입											
적용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시점: 가입일에 고시된 12개월 정기예금 고시이율 +0.1%p 우대 적용</li> <li>※ 비대면 상품 가입 추가 우대이율 미 적용</li> <li>• 회전기간 도래시점: 매 회전기간 시작일에 12개월 정기예금 고시이율 +0.1%p 우대 적용</li> </ul>											
중도해지이자율 (2019. 8. 5. 기준, 세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간</th> <th>금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회전기간 도래 전</td> <td>1개월 미만</td> <td>연 0.2%</td> </tr> <tr> <td>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td> <td>가입 당시 기본이율 × 50%</td> </tr> <tr> <td>회전기간 도래 후</td> <td>12개월 이상</td> <td>회전주기별 적용이율과 동일</td> </tr> </tbody> </table> <p>※ 회전기간 도래 전 중도해지이자율은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과 동일 적용                  ※ 기본이율: 가입 당시 12개월 정기예금 고시이율(우대이율 미적용)                  ※ 예시) 15개월 경과 후 해지 시 12개월은 최초 약정이율 적용, 3개월은 1회전 도래 시 적용된 약정이율 적용</p>	구분	기간	금리	회전기간 도래 전	1개월 미만	연 0.2%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가입 당시 기본이율 × 50%	회전기간 도래 후	12개월 이상	회전주기별 적용이율과 동일
구분	기간	금리										
회전기간 도래 전	1개월 미만	연 0.2%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가입 당시 기본이율 × 50%										
회전기간 도래 후	12개월 이상	회전주기별 적용이율과 동일										
만기후이자율 (19.8.5 기준, 세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이율</th> </tr> </thead> <tbody> <tr> <td>만기 후 1개월 미만</td> <td>약정이율과 만기일자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td> </tr> <tr> <td>만기 후 1개월 이상</td> <td>보통예금 이자율 0.2%</td> </tr> </tbody> </table> <p>※ 약정이율: 2회차 회전도래 시 적용된 12개월 정기예금 고시이율(우대이율 미적용)                  ※ 기본이율: 만기일자 12개월 정기예금 고시이율(우대이율 미적용)</p>	구분	적용 이율	만기 후 1개월 미만	약정이율과 만기일자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후 1개월 이상	보통예금 이자율 0.2%					
구분	적용 이율											
만기 후 1개월 미만	약정이율과 만기일자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만기 후 1개월 이상	보통예금 이자율 0.2%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일부해지	만기해지 포함 4회 이내에서 일부해지 가능 - 예금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 일부해지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일부해지 후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거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예치 불가</li> <li>• 양도 및 공동명의 불가</li> <li>• 질권설정 가능</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대출금리는 해당 예금 적용이율+1.5%p 가산 적용)</li> <li>•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톡톡(비대면)으로 가입한 상품을 예금주가 통장 발급 요청할 경우 소정의 통장발급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발급 할 수 있음(항구 본인방문 필수)</li> </ul>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SBI저축은행 지점관리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사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66-221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sbi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응답하라 SBI인

웹진형 매거진 <희망+>는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열린 편집실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달콤한 나의 가족’ 참가 신청 안내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체험이 있으면 사보편집실에 신청하세요. 전문 포토그래퍼의 사진촬영과 백화점 상품권은 덤입니다.

### 이번호 출연자 한마디

약간의 부담과 설렘으로 시작한 표지 촬영, 하지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응원해준 정보보호팀 식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보보호팀 김진명 대리(표지모델)

사보 촬영을 통해 잘 나온 사진을 남기고 싶었지만 웃는 표정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덕분에 부서분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략기획부 김종영 주임(부서 탐방)

안상희 이사님 덕분에 부서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부서원 모두와 새로운 맛집 탐방을 하고 싶어요!

- 경영관리부 임진숙 주임(한끼 소통)

### 지난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



### 편집후기

#### 힙(Hip)하고 스웁(Swag) 넘치게

이번 표지 콘셉트는 ‘힙합’입니다.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등 힙합 트렌드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힙합을 모른다고 하면 스웁(swag)이 없고, 힙(Hip)하지 못한 ‘어르신’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힙합은 너무 빠르고 낯선 음악이거든요.

저의 음악시계는 90년대 ‘락발라드’에 멈춰 있습니다. 저와 같은 80년대생 남자 중에서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와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노래방에서 열창하다 옆방에서 “적당히 좀 하라”고 한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지나치게 절절한 가사에 잔잔한 음률이 흐르다가 마지막에 목이 터져라 한번 질러주는 상남자의 고음까지. 그리고 노래가 끝날 무렵엔 자아 도취한 아련한 표정까지……. 아직도 노래방 가면 꼭 한 곡은 부르고 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멋진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힙합이 익숙해질 때가 오겠지만 락발라드에 대한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코인노래방에 가서 저만의 스웁으로 ‘천년의 사랑’ 한 곡 해야겠어요.

- 홍보부 유형근 주임

## 🔍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12월 20일(금)까지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